

## 산호세 새소망 교회 '윤독모임' 9 월 모임 보고

모임 기간	9 월 4- 26 일 매 주말(토 or 일) 저녁 9 시
참석인원	12 명 (인원이 많아 2 그룹으로 나누어 줌 미팅)
선정도서	팀 켈러의 '내가 만든 신'



참여 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책을 읽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읽고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.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랑, 돈, 권력 같은 우상 외에 우리생활 깊이 들어와 내</li> </ul>
-------	---

안에 얹혀있는 우상들을 논한부분들이 좋았고...마지막 장까지 읽으며 저자가 우상제거 방법(?)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궁금해지는 책이었다. 드디어 에필로그에서 우상 대체 방법으로 영성훈련에 관한 멘트가 있었는데 나는 이 책에서 팀켈러식의 해석을 기대를 했던터라 약간 아쉬웠다. 그가 이 부분에 추천한 기독교영성까지 읽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다.

- 하나님 지혜보다 나의 지혜를,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갈망을, 하나님 영광보다 나의 평판을,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며 살고 있는 제 자신을 주님 발 아래 내려 놓고,,, 정말이지 '우상 대량생산 공장'이 제 마음이었네요. 켈러목사님 책으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제 속을 들여다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!!
-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었던 많은 것들이 그 형태를 바꾸어가며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였던 것 같다. 특히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따른 간섭과 과보호의 핵심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기적이며 내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려는 욕망이라는 근원적인 우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. 아이들보다 하나님 사랑이 내게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아이들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도 덜 이기적이며 진실해 질 거라는 메시지는 자녀 사랑에 대한 평생지침서이자 내 마음의 반석이 될 것 같다. 이렇듯 우리 삶의 많은 표면적 우상 뒤에 근원적인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 그 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 삶을 움매고 있는 내가 만든 수많은 가짜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.
- 이 책을 통하여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패턴을 돌아보고,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마주하게 됩니다. 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경제적 안정을 바라는것과 같은 쉽게 드러난 우상들과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심을 심하게 갈망하는 숨겨진 우상들 모두 거두어내고 더욱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매일 그리고 또 평생 동안.
- 이 책을 읽고...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짜 신을 알아냈다.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... 내가 어떠한 것에 예민하고 분노하는지...또..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대체하는지....
-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..기도로...그 분과의 친밀한 교제로...개인의 영성훈련이 잘되어 그분께 더 나아가는 자녀가 되길 갈망한다.
- Ch3. Pg. 117-118 표면적 우상만 없애서는 해결될 수 없고 마음 속 근원적 우상이 처리 되어야 하는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다.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.
- Ch 4. Pg. 146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된다. 즉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. 우리는 영적 겸손을 불러 일으키기 어렵다.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서 '제가 이만큼

했습니다, 제가 고생한 것 좀 보십시오'라고 말한다.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. 그냥 씻기만을 원하신다.

육체의 몸을 입은 물질적인 나를 씻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본질인 비물질적인 자아를 발견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래보는 날입니다.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랑하며 주어진 이 삶을 누릴 수 있기를...

- 우리는 열등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자꾸만 뭔가 '큰일'을 하려고 든다...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'큰일'도 요구하지 않는다. (4 장, pg152)  
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을 잊고 살때면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의 시소를 타고 우리의 가치가 하루에도 여러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것을 느끼는것 같아요.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진정한 왕되시기를 기도합니다.

